

(07330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, 농협재단빌딩 10층 대표전화 02)368-3600 팩스 02)368-3700

문서번호	MKT(ST)2405-244
시행일자	2024-05-20
수신	수신처 참조
발신	NH-Amundi자산운용(주) 대표이사
제목	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

1. 귀 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다음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에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펀드명 및 변경내역

펀드명	변경내역	약관 변경
NH-Amundi 하나로 단기채 증권투자신탁[채권]	-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이동원 → 박상현)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)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(2024.01.25) 반영	-
NH-Amundi 100년 기업 그린 코리아 증권투자신탁[주식]	- 부책임용전문인력 추가(천정훈)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)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(2024.01.25) 반영	-
NH-Amundi 100년 기업 그린 코리아 3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	- 부책임용전문인력 추가(천정훈)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)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(2024.01.25) 반영	-
NH-Amundi 퇴직연금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1호[채권혼합]	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-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표준편차 → 최대손실예상액) 반영 (표준편차 기준 7.57% → 97.5 VaR 기준 14.21%, 4등급 유지)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4.03.01시행) 반영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(2024.01.25) 반영	-
NH-Amundi UBP 글로벌리더스30 증권투자신탁(H)[주식·재간접형]	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4.03.01시행) 반영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)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(2024.01.25) 반영	-
NH-Amundi 글로벌 혁신기업 증권투자신탁(UH)[주식]	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-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표준편차 → 최대손실예상액) 반영 (표준편차 기준 19.67% → 97.5 VaR 기준 39.59%, 2등급 유지)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4.03.01시행) 반영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)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(2024.01.25) 반영	-
NH-Amundi UBP 글로벌리더스30 증권모투자신탁[주식·재간접형]	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4.03.01시행) 반영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(2024.01.25) 반영	-

나. 효력발생일 : 2024년 05월 24일 (금)

다. 업무 참고사항

- 수시공시 필요

① 판매사 홈페이지 공시 ② 투자자에게 이메일 송부 ③ 영업점 게시

※ 잔고 유무 관계없이 예탁결제원 판매등록 된 판매사에 한하여 안내 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NH-Amundi자산운용 대표이사



수신처: NH농협은행, NH선물, NH투자증권, DB금융투자, IBK기업은행, IBK투자증권, KB국민은행, KB증권, KDB산업은행, SC제일은행, SK증권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교보생명, 교보증권, 다올투자증권, 대구은행, 대신증권, 리딩투자증권, 메리츠증권, 미래에셋생명, 미래에셋증권, 부산은행, 삼성생명, 삼성증권, 삼성화재, 상상인증권, 신영증권, 신한은행, 신한투자증권, 엘에스증권주식회사, 우리은행, 우정사업본부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전북은행, 카카오페이증권, 키움증권, 하나은행, 하나증권, 하이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한국포스증권, 한화생명, 한화투자증권, 현대차증권, 흥국증권